

북한인사 접촉 관련 숙지사항

【 기본자세 】

- 남북간 대결의식을 고취하는 주제를 언급하거나 체제문제와 관련하여 논쟁 지양
 -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지만 70년 가까이 다른 체제속에서 각자의 사회구조와 의식, 사회작동원리를 보유하고 대치하고 있음.
- 대한민국과 조직위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언행에 각별히 신중
 -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좋은 인상 부여

【 접촉 요령 】

- 남측지역에서는 남측의 질서와 안내에 따르는 것이 남북간 오랜 관례
- 북측을 지칭할 때는 “북측” 또는 “귀측”, 우리측을 지칭할 때는 “남측” 또는 “우리측”으로 호칭
- 북측 주요인사 호칭은 “선생”을 붙여 “○○○ 선생”로 호칭
 - 북측 단장은 “북측 단장” 또는 “단장 선생”으로, 다른 대표들은 “○○○ 대표” 또는 “○○○ 대표 선생”으로 호칭
- * 우리 대통령은 “대통령님” 또는 “윗분”으로, 김정은은 “귀측 윗분” 또는 “제1위원장 선생”으로 지칭(가급적 언쟁 금지)

- 북측인사들이 가슴에 착용하고 있는 김일성 부자 “뱃지”와 관련
-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“뱃지”라고 호칭하거나 요구하지 말 것

* 북한 주민들은 “초상”이라 부르며 “심장”에 비견하는 신성한 물건으로 취급

- 북측인사의 방문목적과 무관한 체제, 이념, 탈북민, 인권문제 등을 주제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
- 북측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발언내용에 대한 사과요구 등 의도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상황실에 보고

【 접촉내용 관련 】

- 공식 지침 받은 내용과 범위 이외에는 일체의 보안 유지
- 특히, 북측인사와 접촉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
- 원칙적으로 매뉴얼대로 대응하되, 모호한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부 안내관 또는 상황실에 문의하여 처리
- 조직위 차원의 대응 및 방침에 대한 사항은 종합상황실(남북 협력팀)에 문의